

협 회 및 회 원 소 식

□ 本會會長에 金福鏞씨 선임 □

- 지난 1월21일 임시총회에서 -

본회는 86년도 임시총회를 지난 1월21일 하오 2 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金福鏞(매일유업 대표이사) 씨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새로이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을 본회고문으로 추대하고 부회장 및 감사도 새로이 선임했으며 본회신임 김복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협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일을 잘 해왔으며 군납으로 인해 회원간의 의견일치를 못본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현 유업체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단결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와 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초지조성과 종축개량등을 통해 낙농산업을 발전시켜야하며 원유가격정책에 있어서는 충고형분함량 및 신선도에 따라 원유가격차등제 실시방안, 유통과정 및 소비과정에서의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과 전유업체를 회원에 가입시키는 방안등을 협의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고 문 崔 英 圭(前서울우유협동조합장)
- “ 尹 快 炳(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 “ 全 仲 潤(삼양식품 회장)
- 회 장 金 福 鏞(매일유업 대표이사)
- 비상근 부회장 閔 丙 憲(해태유업 대표이사)
- “ 吳 在 德(주)빙그레 대표이사)
- “ 金 文 祚(영남우유 대표)
- “ 洪 斗 榮(남양유업 대표이사)
- 상 부회장 柳 在 英
- 감 사 吳 俊 碩((주)비락 대표이사)
- 이 사 康 誠 元(서울우유협동조합장)
- 尹 快 炳(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
- 全 應 德(삼양식품 대표이사)
- 姜 晋 佑((주)롯데해, 롯데우유대표이사)
- 鄭 昌 鎭(서주산업 대표이사)

宋 基 煥((주)도투락 대표이사)

尹 道 榮(인천시 축산협동조합장)

상무이사 張 聲 鐘

□ 86 제 8 기 정기총회 개최 □

본회는 지난 2월25일 회의실에서 제 8기 정기총회를 열고 8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8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과 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회원 18개사중 1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비상근 부회장 1석을 늘려 삼양식품(全應德 대표이사)를 副會長으로 선임하고 감사 2석중 공석중인 1석은 롯데해 롯데우유(姜晋佑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한편 이날 심의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홍보를 계속실시하여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전면확대를 기하고 비수기 재고누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전 유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우유급식에 일반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부에서 추진중인 집유제도 개선 및 유가제도 개선 등 주요 업무는 협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품에 대한 위생관계업무 등 제반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따른 충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다.
5. 유제품 특별 소비세 면제 및 수입억제 비수기자금난 해소 분유대용유업체 공급 등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을 강화 한다.
6.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의 대표자 간담회, 실무자 회의 등을 수시개최하고 전유업체의 회원가입을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제 1 회 학술세미나 개최)

보건신보가 주최하고 농수산부, 보건사회부와 본협회가 후원을 하여 우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수산부 池尙夏 축산국장, 보건사회부 박一相 위생국장을 비롯하여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본회 金福鏞 회장은 축사에서 우유 및 유제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전제하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유는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여 일부 특수층이나 어린이 또는 병약자가 먹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건강식품으로서 누구나 먹고 있는 일반식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유제품은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져서 과거에는 마시는 우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전지, 탈지, 조제분유를 비롯하여 요구르트,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은 물론 각종 식품의 원료 및 첨가물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 우유가 영양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의학적인 효능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터에 이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하고 뜻있는 일이라고 했다.

□ 비수기 우유소비 확대 협조요청 □

- 송아지에 모유먹이기 운동 전개 -

우유소비둔화와 원유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원유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 협회는 전 유가공업체의 명의로 다음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두차례에 걸쳐 유가공업체를 통해 각 낙농가에 배부했다.

1. 송아지에 어미젖 먹이기 권장
 - 송아지 생리상 소화장애가 적다.

- 대용유보다 영양가가 높은 모유가 송아지에게 아주 좋은 이유사료가 된다.
 - 송아지 성장이 빨라진다.
 - 장기적 안목에서 모유급여가 대용유 급여보다 더 경제적이다.
 - 대용유 수입으로 인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2. 경제성 없는 저능력우 도태 권장
우유수급 안정에 낙농가도 참여하고 낙농경영합리화를 위해 저능력우를 도태시키는 것이 좋다.
 3. 낙농가도 우유소비에 앞장설 것을 권장
이웃이나 친지, 회의나 손님접대시 우유 사용 및 우유소비 권장

□ (주) 빙그레 □

- 라면시장 진출 -

우유 및 아이스크림 만을 주로 생산해 오던 (주) 빙그레 (대표 吳在德씨)가 금년들어 라면시장에 본격 참여를 하게 됐다.

최근 아이스크림 제품이 올림픽 공식공급 업체로 지정된데 이어 년초 봉지면인「우리집라면」을 제일탄으로 세계 최초 라면을 생산한 일본의 일청식품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으며 공장은 경기도 광주에 6만여평의 대지에 일일 6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자동설비를 갖춘 라면공장을 지난 1월 준공시키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빙그레이글스의 발족과 더불어 제2차 라면공장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2차 제품으로「3시라면」을 내놓고 용기면인「출발5분진」도 개발 시판에 들어갔는데 동사는 후발업체로서의 소비자 확보를 위해 빙그레 고유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추출된 쇠고기 장국맛에 밀가루 냄새를 최대한 제거, 면발이 매끈매끈하고 쫄깃쫄깃한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라면의 고급화 및 제품의 다양화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에는 8~9 종류의 제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